

신안군, 제1회 섬우럭 축제 성료

이틀간 압해도에서 개최...1000여 명 관광객 방문해 핵 오염수 안전성 검사 마친 즐깁니다 우럭·낙시체험 인기



신안군은 지난 9월 15일부터 16일까지 압해도 송공항에서 개최된 '섬우럭 축제'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압해도에서 개최된 '제1회 섬우럭 축제'는 즐깁니다 신안 우럭을 맛보기 위해 1,000여 명의 많은 관광객이 방문했고, 난타 공연 등 식전 행사를 시작으로 섬우럭 축제 추진위원장의 환영사, 우럭 생산자·판매자·소비자들의 자정선언, 우럭 해파리살회 냉국 시식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또한 부대행사로 진행된 우럭 낙시체험에는 수많은 관광객이 몰려 우럭을 낚을 때마다 환호성을 지르며 즐거워하는 시간을 가졌다. 신안군 관계자는 "최근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로 수산물 먹기를 걱정하는 분들을 위해 특별히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수산물 안전성 조사를 맡겨 방사능 불검출 통보문을 받았으며, 축제장 내에 게시해 놓았으니 안전하게 드셔도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신안군이 안전성을 보증하는 방사능 검사 안전필증 스티커를 부착한 우럭 건정은 20% 할인까지 해주니 많은 소비 부탁드립니다. 우럭 낙시체험도 즐기며 재밌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현재 신안군은 5월 홍어, 갈대리, 낙지 축제 6월 병어, 간재미 축제, 8월 민어, 9월 불불락, 왕새우, 우럭 축제, 10월 새우젓 등 제철에 가장 맛있고 많이 잡히는 시기에 맞춰 지역 수산물 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신안=이덕주기자



함평군, 함평천지전통시장 '추석맞이 농축산물 할인지원 환급행사' 진행

27일까지 행사 참여 점포 13개소

함평군은 "함평천지전통시장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2023년 추석맞이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에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진행되는 농축산물 할인지원 환급행사는 이달 21~27일까지 시장 내 환급 행사 참여 점포 13개소에서 국내산 농축산물을 구입 후 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과 교환권을 시장 내 중앙광장에 마련된 상품권 교환처에 제출하면 온누리상품권을 지급받을 수 있다. 상품권 환급 금액은 구매 금액이 34,000원

이상 67,000원 미만일 경우 온누리상품권 1만원, 67,000원 이상 시 온누리상품권 2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행사기간 중 1인 최대 2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이번 행사는 우리 농축산물 할인행사로 농축산물 가공식품, 수산물, 해외산 농축산물 제품 등은 행사 품목에서 제외되며 상품권 교환은 행사기간 동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서성도 함평천지전통시장 상인회장은 "추석을 맞아 농축산물 할인행사를 진행해 농축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고객들에게는 할인 혜택을 제공해 전통시장 소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함평=김광훈기자

영암군, 장사시설 수급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타당성 조사 용역 실시 중

영암군이 18일 군청에서 '제3차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은, 최근 사회 환경과 가족 구조의 변화로 장사문화가 대장

에서 화장으로 전환되고 있는 가운데, 무분별하게 사용된 공설묘지의 토지 이용 극대화, 차별화된 장사시설 재개발의 필요성에 따라 수립될 예정이다. 영암군은 2023~2027년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 수립, 자연 친화적인 문화·휴식 공간 조성, 공설묘지 재개발 입지의 적정성 등을

놓고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 중이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보건복지부의 '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 주요과제'에 따른 지속가능한 장사시설 수립을 위해 △국내·외 선진장사시설 소개 △연구용역 추진 현황과 설문조사 결과 △영암군 공설묘지 재개발 구상안 등이 발표됐다. 영암=조대호기자

무안군 망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힘찬 출발'



무안군 망운면(면장 박기수)은 지난 15일 회의실에서 제5기 망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촉식 및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새로 출범하는 제5기 망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총 24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신규 위원 위촉 및 신입 민간위원장, 부위원장 등을 선출했다. 이어 2025년 9월 14일까지 2년 동안 지역자원 발굴, 지역특화사업 추진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계획으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져 향후 협의체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민간위원장으로 선출된 박동연 위원장은 "4기 협의체를 이끌어 온 김옥주 전 민간위원

의 수고와 헌신에 감사드리며, 위원장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도 위촉하신 위원님들과 함께 더욱 발전해나가는 망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되도록 최선을 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수 망운면장은 제5기 망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출범을 축하하며, "신규 위원님들의 열정과 연인된 위원님들의 경험을 합쳐 더욱 발전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기대가 크다"고 전했다. 망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매년 지역의 취약계층을 위한 마을복지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사업과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지역복지 공동체 활동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무안=이기성기자

목포시, 목욕·이미용권 지급 확대 추진

인당 연 24매 → 33매 확대...2023년 4분기(10월)부터 시행

목포시가 대표 노인복지사업 중 하나인 어르신 목욕·이미용권 지급 매수를 연 24매에서 연 33매(장당 5,000원)로 확대 지급한다. 시는 목욕·이미용권 사업 추가 예산을 확보해 올해 4분기(10월)에 월 3매 지급으로 확대 시행하며, 내년부터 1·2·4분기 월 3매, 3분기(여름) 월 2매, 총 33매 지급하게 된다. 민선 8기 핵심 공약사항인 목욕·이미용권 지급 확대 추진은 물가상승에 따른 어르신들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목포시 목욕·이미용권 지원 사업은 어르신들의 위생관리와 건강증진을 위해 전국 최초로 시행한 대표적인 노인복지사업으로 70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2만 3000여명에게 지급되고 있으며, 지역 내 어르신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목포시 관계자는 "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 확대로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목포시를 대표할 수 있는 다양한 노인사업을 펼쳐 노인들의 행복지수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목포=기동채재본부

아세요?
한수원이요즘바쁜 이유

온실가스를 없애고
미세먼지는 줄이고
기후변화까지 막는
지구를 살리는 바쁜 에너지를
세계 곳곳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한수원은 지금
바른 에너지 개발로 열일 중**

한국수력원자력주